

# 민주 민형배 vs 새미래 이낙연... 李 득표율 관심

**총선 관심지를 가다**  
광주 광산을

민형배, 광주 선거구 중 유일 현역 주민들 “천지개벽 없는 한 선택”

이낙연, 싸늘한 민심 속 동정 여론 “탈당 패심하지만 잔한 마음 있어”

3명 후보 “일당 독점 폐해” 주장 사전투표 앞 투표 의지 최고조

4·10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5선 국회의원에 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뒤 탈당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 8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현역 의원 민형배 후보가 ‘진명(진 이재명)’이라는 점에서 친명계 현역의원들과 반(反) 이재명 전선에 섰던 이 후보와의 대결 구도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선거구다. 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 후보가 ‘여당 대표’를 표방하며 민심을 훑고 있고,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와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일당 독점 폐해’를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분노·연민> 지난 1일 찾은 광주시 광산구 비아 5일시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강했지만, 동정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다수 시민들은 ‘민주당과 호남의 혜택을 받아온 이 후보가 호남을 버려놓고 선거 때가 되니

찾아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고생했다’는 연민도 상당수였다. 김민희(여·54)씨는 “민형배 후보가 민주당인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지지할 이유는 없다”며 “이낙연 후보는 고향이 같아 좋아했는데 지금까지 보인 정치 행보에 정이 가지 않는다”고 두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은 “민형배 대 이낙연”의 결과는 뻔하다. 게임도 팽퐁이 돼야 볼 재미가 있는데 벌써 지지율 차이가 크다 보니 재미가 없다”며 “호남 입장에서 민주당 단물만 빨아먹고 간 이낙연 후보가 패심하다. 민심은 선거 결과로 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싸늘한 민심에 반해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다.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장금순(여·74)씨는 “주변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가 잔한가 찍어줘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 후보가 오랫동안 호남 정치인으로 일했는데, 한 순간에 버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비아5일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박광자(여·83)씨는 “그래도 이낙연 후보를 찍어주려고 한다”며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형배’로 굳은 민심이지만 국힘·진보 등 약진 기대> 광주 광산은 ‘민주당 텃밭’에서 유일하게 현역으로 살아남아 재선을 준비하는 민형배 후보 선택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정한석(68)씨는 “유세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도 안 된다. 일당 독점은 민형배로 굳혀졌다”며 “주변 사람들 모두가 천지개벽이 없는 한 민주당을 선택하고 민형배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73)씨는 “안 봐도 민주당이 이기는 싸움”이라며 “주변에서도 예전처럼 선거 이야기를 열띠게



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진보당 전주연 후보

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것이 안 봐도 비디오”고 말했다. 이미 민 후보로 굳어진 듯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의 약진 가능성도 점쳐졌다. 당을 보기보다는 후보 개개인의 공약에 집중하는 유권자들이 생기면서다. 연구원 김승현(29)씨는 “저번 대통령선거 때 광주에서 윤석열 표가 꽤 나온 것처럼 이번 총선도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변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무조건 민주당을 뽑지 않는다. 요즘엔 당보다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공약에 집중해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5일시장 상인 박모(72)씨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경제는 계속 힘들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상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발전시켜주고 서민들 삶을 회복해주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 재외 투표율> 광산도 투표 의지 높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지기도 해서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사전투표와 본투표 참여율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광산을 선거구에서도 투표 참여 의지를 드러내거나 투표 독려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

비아5일시장 상인 조모(55)씨는 “요즘 정치 모르겠다, 투표도 안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에 공감할 때도 있지만 투표는 자기 소신이다”며 “지역 분위기 따라 하는 투표가 아닌 잘못을 고깝게 지적해주는 후보를 소신있게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선현주(여·48)씨는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이 ‘방송을 보면 매일 싸우고 있는데 뽑으면 뭐하냐고 하더라’라며 “네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회유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특별취재팀 김해나·이유빈·서민경·장혜원 기자 khn@kwangju.co.kr

## 文 전 대통령, 부·울·경 광폭 행보

민주당 후보 5명 지원 사격

퇴임 후 ‘잇힌 사람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원군으로 본격 등판했다. 당의 핵심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후보 지원에 직접 나서지는 않겠, 현 정부 비판에도 열을 올리며 현실 정치의 한 복판에 뛰어든 모양새다. 3일 문 전 대통령의 최근 일정을 분석해보면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최근 이틀 동안 부울경 지역에 출마한 다섯명의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전날에는 울산에서 동구 김태선, 중구 오상택, 남구 전은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일엔 자신의 옛 지역구이기도 한 부산 사상의 낙동강 벚꽃길을 감쪽 방문에 배재정 후보를 격려하고,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양산갑 이재영 후보와 견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용한 응원’이란 설명과 달리 강한 수위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일엔 “철십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했고, 이튿날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직격탄을 연속으로 날렸다. 전임 대통령이 민주당의 총선 프레임이기도 한 ‘정권심판론’을 함께 띄운 것으로, 접전지가 많은 부울경에서 지지층을 막판 결집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후보를 격려 차원”이라며 “선거일까지 부울경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투표지 촬영 SNS 올리면 처벌... ‘인증샷’은 밖에서만

선관위, 주의사항 안내... 정당 투표 ‘접지기 기표’하면 무효 처리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투표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찍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는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투표가 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간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했거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다. 또 기표용구를 여러 번 겹쳐 찍어도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것이 명확하면 유효투표다. 그러나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불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연합뉴스

**투표로 심판!**

윤석열 즉각퇴진!  
이길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소나무당

사전투표 4월 5일(금)~4월 6일(토)  
선거일투표 4월 10일(수)

**29**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전진숙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농협 351-1303-4256-53**

예금주 : 북구을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전진숙후원회

후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 익명 후원 가능(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  
후원지역 개인 실명으로 입금해주세요!(법인, 단체, 공무원, 교원, 외국인 불가)  
세금혜택 연말 정산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10만원 이하:전액 환급/10만원 초과:15~25% 세액 공제)  
후원문의 010-7419-6665 후원영수증 발행시(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후원금액 필요)

**1** 전진숙

광주 북구(을)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